

# 영어 번역 문체의 수사론적 특성<sup>1)</sup>

박영목(朴泳穆) (홍익대 교수)

## <차례>

- I. 머리말
- II. 영어 번역 문체 생성의 요인
- III.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
- IV. 맺는 말

## I. 머리말

영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번역 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의 생성 과정과 특징적인 양상을, 번역의 인지적 과정과 영어의 표현 양식 및 국어 표현 양식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어 번역 텍스트를 다양하게 표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어 번역 텍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내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영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밝혀 내는 데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첫째 방법에 의하여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 요인 및 양상을 밝혀 보기로 한다.

## II. 영어 번역 문체 생성의 요인

영어 번역 문체라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첫째 가설은, 영어 번역문은 틀림 없는 한국어 문장이므로 영어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상 영어 번역 문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가설이다 (제1 가설). 이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영어 번역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 양식은 영어 번역문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1) 이 논문은 '국어교육' 85-86호(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87-100)에 게재된 논문임.

범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표현 규칙이나 관습을 무시하거나 어긴 영어 번역문을 준거로 하여 영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무의미한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가설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영어 텍스트의 내용만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표현 양식과 표현 규칙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번역하는 총체적 작업이므로 영어 번역 문체라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제2 가설). 이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영어 번역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 양식은 번역자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갖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나 수사론적 전통에서 유래한 작문 관습과 규칙을 번역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 양식의 특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국어 문체론의 측면 뿐만 아니라 작문 이론의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영어 번역 문체에 대한 두 가지 가설 즉 제 1가설과 제 2가설의 성립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심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체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결과물이 지닌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표현의 결과물이 지닌 특성은 결국 표현의 과정에서 필자가 행한 특징적인 사고 작용 또는 문제 해결 작용에 그 뿌리를 두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표현 결과문의 특징 즉 문체의 생성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현 결과로서의 문체와 대비하여 사고 작용으로서의 문체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Young, Becker, Pike,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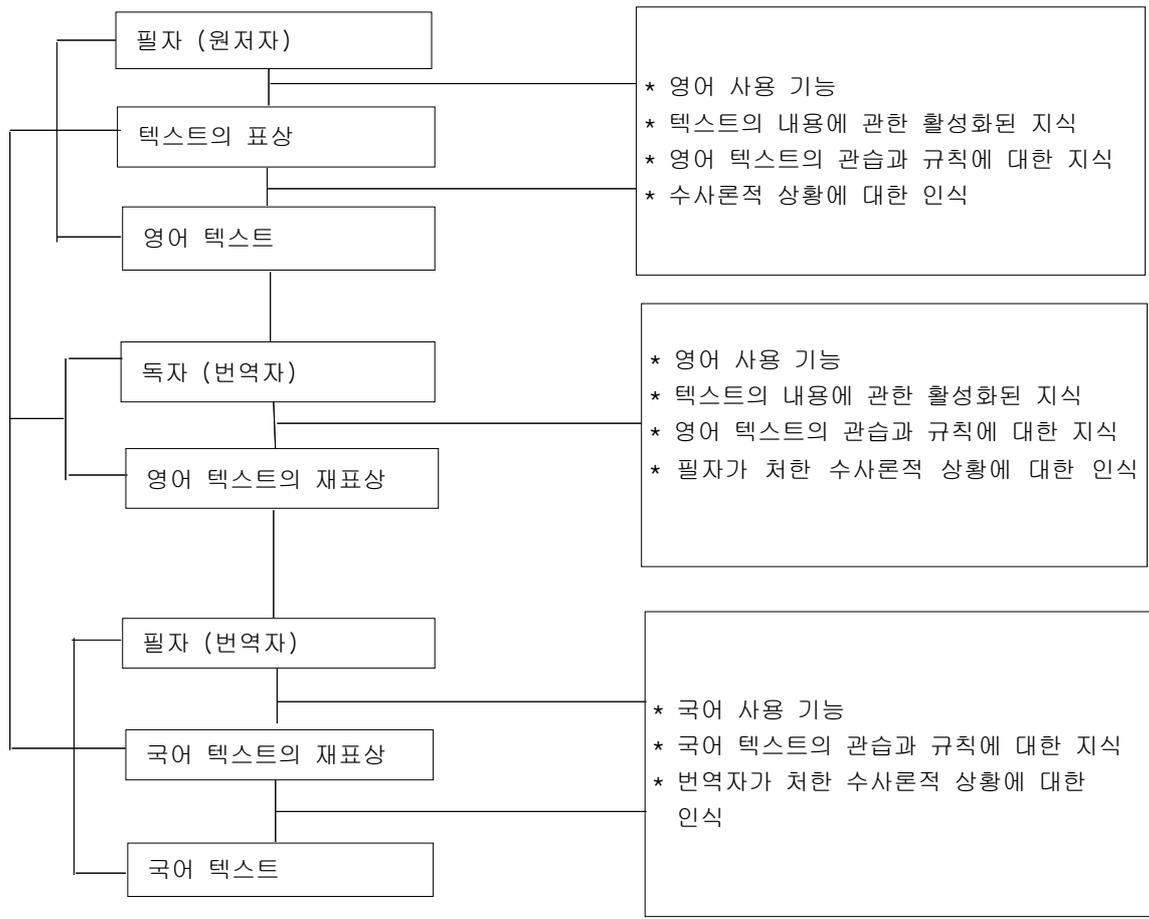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데 동원되는 인지적 과정은 독해의 과정과 작문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다. 모국어로 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쓰는 과정 등에 대한 연구 결과 (Flower 외, 1990)를 참고하여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의 총체적 과정은 필자(원저자)가 영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독자(번역자)가 영어 텍스트를 독해하는 과정, 필자(번역자)가 국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등 평행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특징적인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과정들 중에서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과 직결되는 과정은 번역자의 영어 텍스트 독해 과정과 국어 텍스트 생산 과정이지만 원저자의 텍스트 생산 과정 역시 번역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번역자는 원저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나름대로의 새로운 텍스트를 머리 속에 재표상한다. 이러한 재표상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번역자의 영어 사용 기능, 원저자가 작성한 영어 텍스트의 내용에 관한 활성화된 지식, 영어 텍스트의 일반적인 관습과 규칙에 대한 수사론적 지식, 원저자가 처한 수사론적 상황(작문의 목적, 예상 독자, 필자의 입장, 주제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네 가지 요인과 관련되는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번역자가 재표상한 텍스트는 원저자가 생산한 텍스트와 거리가 먼 텍스트가 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사용 기능이 부족한 경우 원저자가 생산한 텍스트의 내용과 거리가 먼 텍스트를 번역자는 재표상해 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어 번역 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을 생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저

자가 활용하고 있는 영어 텍스트의 관습과 규칙에 대한 수사론적 지식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의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 원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어휘 선택 방식, 문장 구성 방식, 문장의 배열 및 연결 방식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다음 과정에서 국어 텍스트로 번역할 수도 있고, 텍스트의 내용만을 중시하여 표현 방식에는 구애 받지 않고 다음 과정에서 국어 텍스트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옳고 그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자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가설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림1>에서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과정은 번역자가 재표상한 영어 텍스트를 번역하여 국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는 머리 속에서 재표상한 영어 텍스트를 번역하여 국어 텍스트로 재표상하게 되며, 머리 속에서 재표상한 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어 텍스트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 및 재생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번역자의 국어 사용 기능, 국어 텍스트의 관습과 규칙에 대한 수사론적 지식, 번역자가 처한 수사론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영어 번역 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을 생성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 국어 사용 기능이 부족할 경우 번역자는 어휘 선택이나 문장 구성 면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영어 번역 문체의 한 특성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다. 국어 텍스트의 관습과 규칙에 관한 수사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통적인 국어 표현 양식에서 찾을 수 없는, 매우 생소한 표현 양식을 번역자는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소한 표현 양식은 영어 문법 참고서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친숙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국어 텍스트의 일반적인 관습이나 규칙과는 거리가 먼 표현 양식이다. 번역자가 처한 수사론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번역자는, 원저자의 수사론적 상황에 대한 인식 혹은 텍스트의 생산 의도와는 관계 없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난해한 어휘 선택, 지나치게 간명하거나 복잡한 문장 구조의 선택 등을 통하여 번역자 나름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영어 텍스트의 독해 과정과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서의 영어 번역 문체가 생성될 가능성은 다음 세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경우는 번역자가 독해의 과정 및 번역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번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제 1가설을 신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영어 번역 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 생성될 여지가 없다. 둘째 경우는 번역자가 독해 및 번역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번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제 2가설을 신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국어 문체와는 구별되는 영어 번역 문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양식이 규칙적인 양상을 띠면서 생성될 것이다. 셋째 경우는 번역자가 독해 및 번역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고, 번역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제 1가설과 제 2가설의 양극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 또는 그 가설들 중의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번역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불규칙적인 양상을 띠면서 생성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영어 번역 텍스트의 대부분은 이 셋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림 1> 영어 텍스트 번역의 인지적 과정

### Ⅲ.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

문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박갑수, 1979). 예를 들어 Corbett(1976)은 문체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눈 바 있다. 첫째 부류는 문체를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휘상의 장치 및 통사상의 장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부류는 문체를 규준적인 언어 형식으로부터 이탈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간결한 문체, 화려한 문체, 권위있는 문체, 극적인 문체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체상의 어떤 기준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문체는 텍스트의 내적 특성은 물론 외적 특성에도 연관을 맺는다 (Enkvist, 1964). 텍스트 내적 문체는 음운, 형태, 어휘, 통사 상의 요소와 주로 관련된다. 텍스트 외적 문체는 글의 종류, 글의 상황, 필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 등의 요소와 주로 관련된다. 문체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볼 때 문체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은 수사론적 측면과 언어학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askin, Weiser, 1987).

영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유는 연구 방법과 텍스트와 번역의 다양성 때문이다. 문체적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번역자가 누구인지, 번역 대상 텍스트가 어떠한 것인지, 번역의 인지적 과정이 어떠한지 등의 수없이 많은 변인에 따라 영어 번역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을 보다 간명하게 조망해 보기 위해 관심의 대상과 폭을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심 대상 텍스트를, 언어학 분야의 전문적 필자가 작성하고 같은 분야의 전문적 필자가 번역한 학문적인 글(academic writing)에 국한하기로 한다. 또한 문체적 특성을 문장의 다양성, 문장의 명료성, 문장의 연결성, 어휘 사용의 네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문장의 다양성

숙련된 필자에게는 자신이 선호하는 어휘상의 장치 및 통사상의 장치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 장치에 대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 필자의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문장의 다양성은 전통적인 수사론에서 문장의 명료성 및 간결성과 함께 문장 수준에서의 문체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다루어 왔다(Raskin, Weiser, 1987).

비슷한 길이의 문장들만으로 구성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싫증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독해를 하는 데도 지장을 준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텍스트 또한 매우 서툰 글 또는 유연하지 못한 글로서의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 준다. 반면에 매우 긴 문장이나 복잡한 구조의 내포문을 가진 문장들로 구성된 텍스트는 독자의 독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장 생산의 과정에서 문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와 통사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글을 쓰는 것은 효과적인 문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영어의 경우 국어와는 다른 몇 가지 유형의 기본 문형이 있다. 이들 기본 문형은 대등한 접속이나 종속적인 접속에 의해, 또는 관계절이나 수식어 등에 의해 확장되는 데 일반적으로 숙련된 필자일수록 기본 문형의 확장과 결합을 통하여 문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체적 특성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을 독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또한, 단어 및 어구 수준에서는 제한되어 있던 표현상의 선택의 폭을, 문장 확장이라는 구조적 변형을 통하여 넓힘으로써 문체적 특성을 살리기도 한다.

다음에 제시된 ‘예문 1’ (윤지관, 19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문 분야의 영어 번역 텍스트는 다양한 구조의 문장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국어 텍스트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내포문을 가진 긴 문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영어 번역 문체의 한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예문 1)

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을 나눈 소쉬르의 핵심적 구별이 감추

어저 있음을 깨닫는다. ② 또한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처럼, 두 관계 양식의 우선성이라는 특별한 문제에서 보면 소쉬르는 분명 통시적 혹은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연합적 혹은 계열적인 것으로 기운다. ③ 전자의 논리적 우선성은 이미 이 모델 속에 암시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반영하다’와 같은 낱말의 언어적, 통합적 기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신 자체 속에 전체로서의 문장의 계열들을 담고 있고 연합적 연쇄를 통해 언어적 기능과 작용 일반을 벌써 배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장 번호는 필자가 붙인 것임)

## 2. 문장의 명료성

문법 이론만으로는 개별 문장의 명료성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 문장의 명료성을 표현의 효과성 및 적절성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숙련된 필자일수록 다양한 통사 구조를 자유 자재로 구사하며, 비교적 긴 문장의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복잡한 통사 구조로 된 긴 문장은 자칫하면 문장 표현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해칠 수도 있다. 문장 표현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불필요한 수식어의 사용, 부적절한 피동문의 사용, 부적절한 명사화 구문의 사용 등이 있다.

수식어는 문장의 구성 및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수식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식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을 ‘이러한 종류의 폭력은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또한 의미상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수식어를 중복 사용하는 일도 흔하다. 예를 들어 ‘미식 축구 규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한 개인을 상상해 보라’라고 번역해도 될 것을 ‘미식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규칙을 배우기 위한 지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한 개인의 정신 작용에 대한 그림을 상상해 보라’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문장의 의미 또한 덜 명료하다. 예를 들어 ‘공이 철수에 의해 던져졌다’라는 피동문보다는 ‘철수가 공을 던졌다’라는 능동문이 훨씬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이다. 물론 필자가 행위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동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 번역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피동문은 표현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영어 번역문에서는 동사나 형용사로부터 전성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 또한 문장 표현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명사화 구문에서는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행위주 또는 대상이 생략되는 일이 많으며 문장의 길이 또한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료를 재분석해야 한다’라고 번역해도 될 것을 ‘자료의 재분석하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번역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길고 의미 또한 덜 명료한 문장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또한 영어 문장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의 끝에 놓는 경향이 있는데 번역의 과정에서 이러한 배열 순서를 단순하게 활용하면 어색한 국어 문장 또는 원저자와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국어 문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 1> 뿐만 아니라 다음에 제시하는 <예문 2>(김영수, 1987)에서도 긴 수식어

의 사용, 피동문의 사용, 명사화 구문의 사용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국어 문체와는 다른 특성들을 엿볼 수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문장의 명료성 정도는 원저자의 영어 텍스트와 번역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불필요한 수식어의 중복, 부적절한 피동문 및 명사화 구문의 사용 등을 영어 번역 문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단순하게 규정짓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명료하지 못한 문장 표현의 개연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예문 2)

① 언어 기능을 이해하거나, 말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오도하는 많은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진정한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여야 한다. ②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적 유산과 대부분의 사회적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③ 우리의 전인생관, 행위, 인격은 이 언어, 즉 우리가 실재와 접촉하는 주된 수단의 사용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는다. ④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언어 사용은 지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논제를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식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⑤ 말이 무지를 감추는 수단이 되고,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반항하고 있을 뿐이면서 그것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믿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시대는 없었다.

### 3. 문장의 연결성

일관성(coherence)은 전통적으로 내용의 배열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흔히 연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9세기에 Bain이 효과적인 단락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통일성(unity), 일관성(coherence), 강조성(empha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서양의 작문 교과서에서는 일관성을 통일성의 실현을 도와주는 단락의 한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Raskin, Weiser, 1987). 일관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관성은 문법, 어휘 및 의미상의 자질과 관련되는 어떤 특성이라는 점이다. 둘째, 일관성은 단락의 배열 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조직과도 관련되는 어떤 특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관성은 독자로부터 하여금 의미의 흐름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특성으로서(Fahnestock, 1983) 텍스트 내적 특성과 텍스트 외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Bamberg, 1983). 이처럼 일관성이 텍스트 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일관성과 연결성(cohesion)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일관성은 필자에 의하여 의도되고 텍스트에 의하여 성취되고 독자에 의하여 인식된 텍스트의 목적, 어조, 내용, 문체, 형식 등의 정합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성은 언어 표현상의 단서를 통하여 일관성을 달성하는 텍스트 내적 자질로서 흔히 응집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장의 연결성은 문법적 요소 및 어휘적 요소의 사용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사용을 통하여 필자는 독자로부터 하여금 문장 내에서는 문장 사이에서의 의미상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문장의 연결성은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통일성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한다. 다음에서는 문장의 연결성을 문법적인 연결성과 어휘적 연결성과 접속 관계에 의한 연결성으로 구분하여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을 조망해 보기로 한다.

### 3.1. 문법적인 연결성

문법적인 연결성은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장치(cohesive devices)의 사용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대표적인 연결 장치에는 지시, 대치, 생략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Halliday, Hasan, 1976). 다음 <예문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시 장치는 주어진 문장 이전에 사용된 단어를 대치하거나 재언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문 3)

- ① 철수는 경주용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는 밤마다 그것에 대한 꿈을 꾸다.
- ② 철수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오래된 세단이다. 그러나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 차는 비교적 성능이 좋은 것이다.
- ③ 어떤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다. 그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다.

위의 예문 ①의 경우 지시 장치는 앞 문장에 포함된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앞 문장에 사용된 어구를 단순히 대체하는 역할만을 한다. ②의 경우 지시 장치 ‘그(차)’는 ‘비교적’이라는 어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의미론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지시 장치 ‘그’는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임을 드러내 준다. 이와 같이 지시체는 문장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영어 텍스트에서의 지시어의 기능은 작문의 관습과 규칙은 물론 언어의 구조 면에서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시어의 빈번한 사용이나 어색한 사용 등은 영어 번역 문체의 한 양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국어 텍스트가 영어 텍스트에서 지시어를 갖는 기능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대치에 의한 연결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함이 없이 하나의 표현 형식을 다른 표현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치는 어떤 특정의 어휘 항목을 반복하는 대신에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치 장치에는 불완전명사 ‘것’, 대동사 ‘하다’, 지시 형용사 ‘그렇게’ 등이 있다. 영어 번역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치 장치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예문 4)

- ① 철수는 푸른 무늬의 옷 대신에 붉은 것을 사기로 했다.
- ② 철수는 어제 하루 종일 책을 열심히 읽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
- ③ 철수는 이번 일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 한다.
- ④ 철수는 벌써 여섯 개의 사과를 먹었다. 그런데도 그는 한 개를 더 먹고 싶어 한다.

위의 (예문 4)는 영형태의 대치 즉 생략에 의한 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 개’는 ‘한 개의 사과’를 뜻한다. 대치에 의한 연결성의 확보 방식면에서도 영어 텍스트와 국어 텍스트 사

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국어 텍스트의 표현 양식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대치 방식이 영어 번역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현상도 역시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2. 어휘적 연결성

어휘적 연결성은 문법적 연결성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어휘적 연결성은 한 어휘 항목과 다른 어휘 항목의 의미론적 관계에 의존하는 반면에 문법적인 연결성은 그렇지 않다. 둘째, 문법적 연결성은 지시 대상이나 대치 대상에 근거하여 해석되는 연결 장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반면에, 어휘적 연결성은 의미상으로 유사한 어휘들의 병치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어휘적 연결성을 실현하는 수단에는 반복과 병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alliday, Hasan, 1976).

(예문 5)

- ① 철수의 차는 휘발유 1리터 당 12마일을 달린다. 나의 차도 그렇다.
- ② 내 동생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앓고 있다. 동생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하겠다.

위의 예문 ①에서 보는 것처럼 반복에 의한 연결성은 동일어, 동의어, 유사 동의어, 상위어 등을 반복함으로써 실현된다. ①의 두 문장 모두에 나타나는 ‘차’는 동일한 대상은 아니지만 두 문장 사이에는 연결성이 있다. 그 까닭은 동일한 어휘가 공기(co-occurrence)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 ②에서 보는 것처럼 병치에 의한 연결성은 의미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두 어휘를 병치시킴으로써 실현된다. 병치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다양한 종류의 반의어와 동일한 의미론적 영역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영어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는 어휘적 연결 장치들이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드러나는지를 규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휘적 연결 장치는 개별 언어의 문장 구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에 영어 번역 문체의 특징적인 양상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 3.3. 접속 관계에 의한 연결성

문장의 접속 관계는 문법적 연결성이나 어휘적 연결성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접속 관계의 경우 선행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지시하거나 대치하는 일이 없으며, 선행 문장에 사용된 어휘와 직결되는 새로운 어휘 항목을 제공하는 일이 없다. 접속 관계에 의한 연결성은 접속어나 연결 어구에 의해 실현되는 연결성을 말한다.

접속 관계의 유형에는 부가적 관계(그리고), 반대 관계(그러나), 인과 관계(그러므로), 선후 관계(다음에), 지속 관계(물론) 등이 있다 (Reichman, 1985). 부가적 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접속의 유형으로서 선행 문장의 화제에 관하여 말할 내용이 더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연결성을 실현한다. 반대 관계는 두 문장의 내용이 대립되는 관계에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연결성을 실현한다. 인과 관계는 후행 문장이 선행 문장에 제시된 정보로부터 파생된 결과 혹은 이유임을 표시함으로써

연결성을 실현한다. 선후 관계는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연결성을 실현한다. 지속 관계는 부가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 자질을 드러냄이 없이 선행 문장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보충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문장 사이의 연결성을 실현한다. 이와 같은 접속 관계는 전통적인 국어 텍스트에 비해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다. 전통적인 국어 텍스트에서는 접속 관계 표지를 생략하는 일이 많지만 <예문6>(이기동, 임상순, 김종도, 1988)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접속 관계 표지를 생략하는 일이 드물다. 접속 관계 표지와 관련된 영어 번역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영어 번역 문체의 양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문 6)

말하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고를 낱말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개념, 감정, 그리고 의도에 대하여 말한다. 듣기에 있어서는, 그들은 낱말을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의도된 개념과 감정 그리고 의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말하기와 듣기는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무엇을 드러내고 마음이 개념과 감정, 그리고 의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말하기와 듣기는 이 이상이다.

#### 4. 어휘 사용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가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어휘의ニュ앙스, 내포적 의미, 다의적 의미, 공식성의 정도 등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번역과 연관되는 수사론적 상황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번역의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번역자는 어휘 사용의 면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는 비단어의 사용, 부정확한 단어의 사용, 부정확한 파생어의 사용, 부정확한 관용 어구의 사용, 불필요한 단어의 사용,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단어의 사용, 호응상의 불일치, 이중 부정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번역자의 국어 사용 기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 용어의 경우 국어 사전에 적합한 어휘 항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혹 등재되어 있더라도 의미가 상이할 경우 신조어를 사용하거나 생경한 파생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어휘 사용 역시 영어 번역 문체의 특징적인 양상을 형성하는 데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 IV. 맺는 말

지금까지 연어 번역 문체가 지닌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 요인과 특징적인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 요인과 관련하여 먼

저 두 가지 대립적인 가설, 즉 이상적인 번역을 전제로 하는 한 영어 번역 문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제1가설과 이상적인 번역을 전제로 하더라도 영어 번역 문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제2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번역의 인지적 과정 모형을 상징해 보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 번역 문체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성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은 영어 텍스트를 독해하는 과정과, 독해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국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번역자의 지식, 기능 및 태도 요인과 깊은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어 번역 문체의 특징적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상의 장치들, 문장의 다양성 문장의 명료성 문장의 연결성 어휘 사용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표현 장치별로 영어 번역 문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지를 간단히 추정해 보았다. 영어 번역 문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어 번역 문체의 생성 변인은 물론 특징적인 양상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김영수 (역) (1987) <의미의 의미> (I. 리처즈, C. 오그든 저) 현암사.
- 박갑수 (1979)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 세운 문화사.
- 윤지관 (역) (1985) <언어의 감옥> (F. 제임슨 저) 까치.
- 이기동, 임상순, 김종도 (역) (1988) <언어와 심리> 탑출판사.
- Bamberg, B.(1983) 'What makes a text coherent?'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4:4 pp. 417-29.
- Enkvist, N. (1964) 'On difining style' In J. Spencer (ed.) *Linguistic and style*. New York: Oxford U.
- Fahnestock, J. (1983) 'Semantic and lexical coherenc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4:4 pp. 400-16
- Flower, L., Stein, V., Ackerman, J., Kantz, M., McCormick, K., & Peck, W. (1990) *Reading to write*. New York: Oxford U.
- Halliday, M.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Raskin, R., & Weiser, I., (1987) *Language and writing*. N.J.: Ablex.
- Reichman, R.(1985) *Getting computers to talk like you and me*. M.A.: MIT.